병원장 공석 5개월… 안타까운 소록도 병원

슈바이처는 없나요?

한센병 편견·낮은 보수에 기피
의사 정원 6명 불구 2명만 근무
보건부, 병원장 특별 공모 나서

국내 한센병 환자 전문 치료기관인 고흥 국립 소록도병원이 5개월째 공석 중인 병원장 모시기에 나섰다.

김중원(53) 제27대 병원장이 지난 2월 병원 개업을 위해 명예퇴직했으나, 이후 마땅한 후임자가 선뜻 나서지 않은 까닭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고위공무원단 부처자율직위인 국립 소록도병원장에 민간영역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직 내·외부 지원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 소록도병원장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를 내고 이달 말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8월 7일 면접을 거쳐 9월 초 병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부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단 중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친데다 그나마 적임자가 없어 후임 병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의사들의 지원 기피는 수도권에서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 교통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데다 한센병에 대한 편견, 낮은 보수 수준, 인센티브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의 급여는 기준급(4천702만6천~5천643만1천원), 직무급(720만원), 성과급 등 연봉 7천만원선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일반적인 의사들의 수입과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소록도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648명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모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다 보니 정원이 6명인 의사직에 현재 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16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27명의 병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이었고 업무수행에 의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도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대할 방침이지만 보건·의료·복지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은 정년까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고 복지부 내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이 3년간 제한되지만 이후 전보가 가능하며 보수 역시 능력과 자격, 경력 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며 "뜻있는 민간 의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임 제26대 병원장도 내부 지원자가 없는 탓에 공모를 통해 민간 의사였던 김윤일씨를 임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비만 예방 요리 맛보세요" 23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에서 열린 '비만예방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에서 황일봉 남구청장(오른쪽) 등이 음식을 맛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곤약매실비빔국수' '인삼을 넣은 삼계선' '단호박 약밥' '우엉잡채'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마·더위 섞이며 불쾌지수 급증

광주·전남 오늘 10~40㎜ 비

어제 광양선 오존경보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넘나들면서 23일 불쾌지수가 80에 육박하고 오존경보도 발령됐다.

연중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대서(大暑)인 이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순천 33.9도를 최고로 ▲광양 32.9 ▲구례 32.6 ▲광주 30.3도까지 치솟았다.

장마와 무더위가 뒤섞이면서 불쾌지수도 올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광주의 경우 이날 오후 6시 현재 79를 기록, 시민들의 절반 가량이 불쾌감을 느끼는 짜증스런 하루를 보냈다.

또 이날 오후 1시께 광양시 광양읍과 중동지역에 오존 농도가 0.12ppm으로 나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주의보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해제됐다. 광양지역의 오존주의보는 이번이 올 들어 8번째이다.

오존은 고온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며 풍속이 약해 대기가 정체될 때도 오존 농도가 상승한다. 오존주의보는 오존 농도의 1시간 평균치가 일정 수준(0.12ppm)보다 높아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발효하는 것으로, 0.3ppm 이상이면 오존경보·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효된다.

한편 광주·전남은 24일에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0~40㎜의 비가 내려 낮 최고기온은 2~3도가량 낮아지겠으나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여전할 전망이다.

중복(中伏)인 25일께 장맛비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패사범 해외재산 몰수 가능

법무부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3일 횡령, 뇌물, 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협약 비준국들은 부패 사범이 빼돌린 부동산 등 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 업무를 공조하게 된다.

현재 9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협약 서명 후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되다.

법무부는 이 특례법 제정안을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사업장 67%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쓴다

23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51개 업체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7.5%에 달하는 102곳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전문직(14.1%), 제조(13.4%), 건설(10.5%), 교육(5.6%) 등 순으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 소프트웨어로는 불법 복제된 사무용 프로그램(11.8%)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틸리티(10.7%), 백신·보안용(7.4%), 건축·설계용(6.6%) 등 순이었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품 사용 기관·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복제품 사용 문화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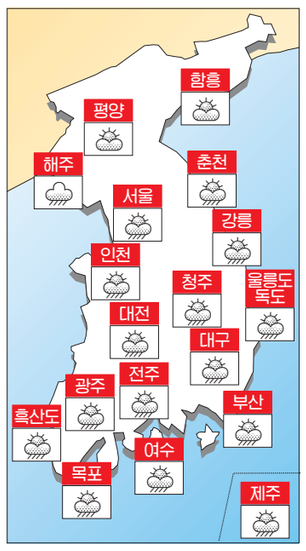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막바지 장맛비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7월 24일 (음 6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한두차례 비	24~28℃
목 포	한두차례 비	23~27℃
여 수	한두차례 비	22~25℃
완 도	한두차례 비	22~27℃
구 례	한두차례 비	24~29℃
해 남	한두차례 비	22~27℃
장 흥	한두차례 비	22~27℃
고 흥	한두차례 비	22~26℃
순 천	한두차례 비	23~28℃
영 광	한두차례 비	22~27℃
진 도	한두차례 비	22~28℃
전 주	한두차례 비	22~28℃
남 원	한두차례 비	22~28℃
흑산도	한두차례 비	21~25℃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8:17 21:42 썰물〈 01:54 13:58
여 수 밀물〈 03:04 09:40 썰물〈 16:53 23:03

▲해뜸 05:35 ▲해짐 19:43 ▲달뜸 14:53 ▲달짐 00: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 씨						
최저/최고	24/30	23/30	23/31	24/31	24/30	23/30

기억·학습 능력 높이는 방법 발견

서울대 연구팀, 뇌질환 치료에 활용

서울대 두뇌한국(BK21) 의생명과학연구사업단은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제어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단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mGluR1 신호의 장기적 감소'(Long-Term Depression of mGluR1 Singaling)를 미국의 생물학 관련 학술 저널 '뉴론'(Neuron)지 7월호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Glutamate)의 여러 형태 가운데 소뇌의 특정 세포에서 발현되는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1형(mGluR1 ·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 type 1)은 기억과 학습 활동을 조절한다.

사업단은 mGluR1이 제거된 실험용 쥐는 자극이 반복돼도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데 장애를 겪으며 mGluR1이 발현된 신경세포가 해로운 전기자극을 받으면 신호의 세기가 점차 감소하다 사라져 기억과 학습 능력이 감퇴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의 김상정 교수(의대 생리학교실)는 "mGluR1은 학습과 기억 외에도 간질, 약물중독, 통증, 뇌졸중 등 주요 뇌질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mGluR1을 제어한다면 이들 질환의 치료법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안내전화 개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연계해 주는 '범죄피해자 안내전화'를 개설해 운용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 · 관이 함께 참여해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제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안내전화도 함께 개설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안내전화 대표번호(02-500-9100)로 전화하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해당 사건이 처리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